

이슈 & 진단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 · 귀촌

제42호 2012. 4. 4

- 작성 : 이수행 /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soohaeng@gri.kr, 031-250-3278)
이상훈 /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쟁점과 대안
- I. 귀농 · 귀촌의 현황
- II. 귀농 · 귀촌의 새로운 트렌드
- III. 정책방향
- IV. 시사점

- 「이슈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Cromartie and Nelson, 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Economic Research
Report 79*, ERS, USDA.

쟁점과 대안

I .

(離村向都)

(離都向村)



2000

90%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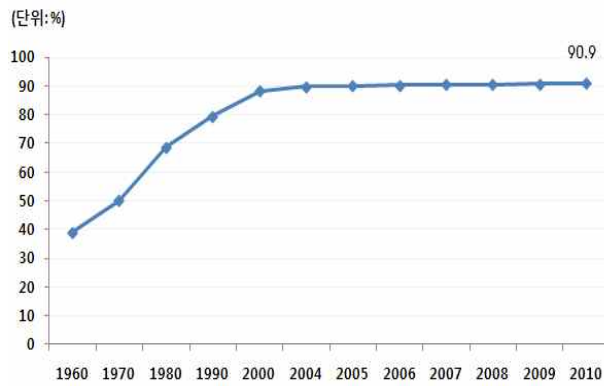
2007

3 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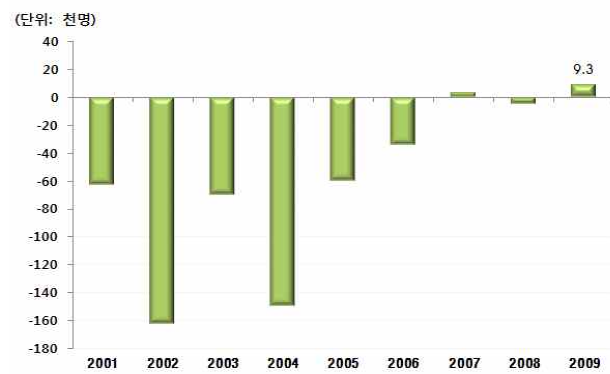
9 3

<한국의 도시화율>



자료 : “전국민의 91% 도시지역에 산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7.26)

<농촌 순유입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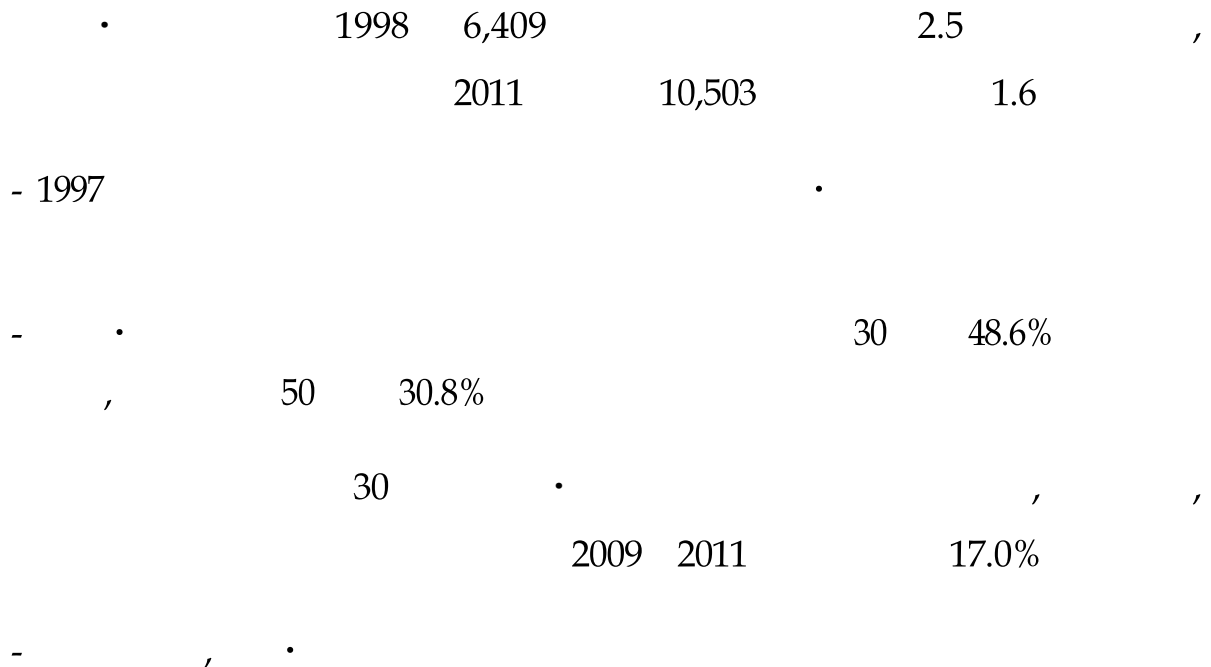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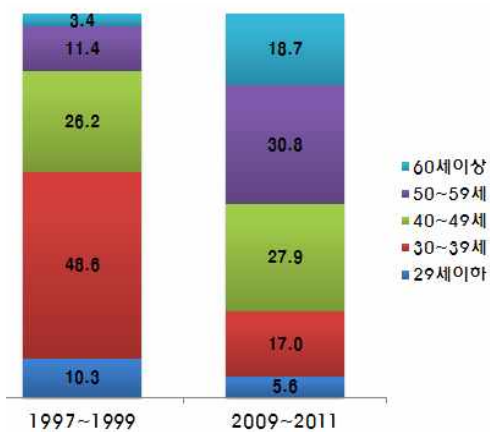
(Push Factor)

(Pull Factor)

□ 1997 2008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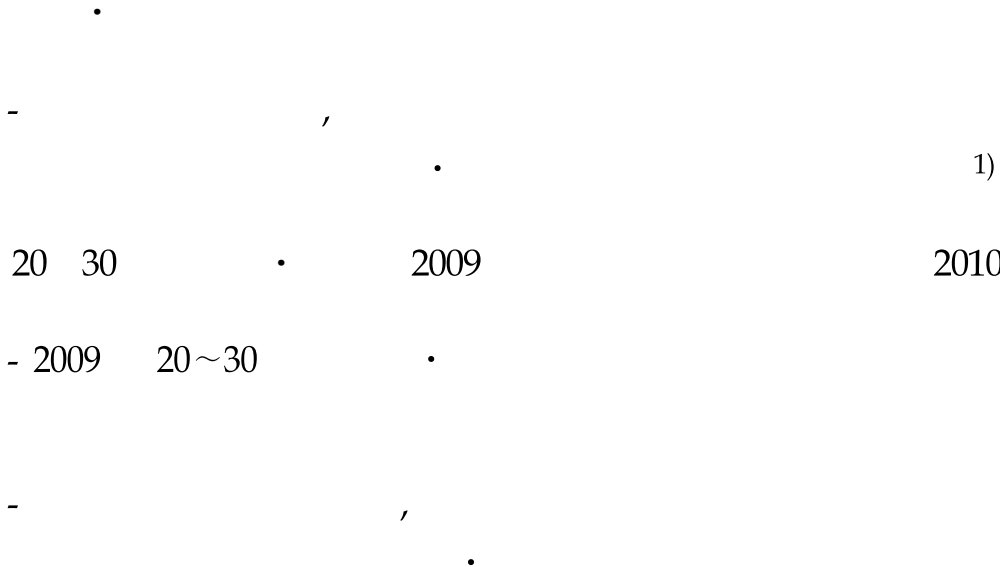
<연도별 귀농가구 수 추이변화>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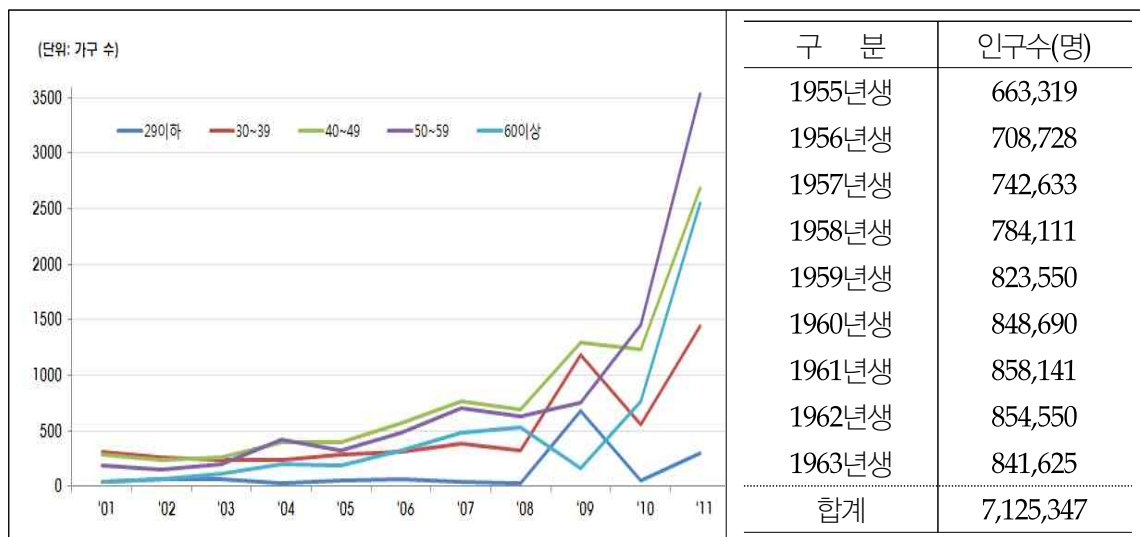
□ 2009

1955



<연령별 귀농 · 귀촌 가구 변화 추이>

<베이비부머 인구규모>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1) (2006), 4 ~5 , LG 871 , LG 1 4 58% (



,

680 (1947 49)
2000 6 2)

- 1990~2010 323.4 ,
2020 2010 26.5%
- 10 80



63.7% . ,

.

. 2010 2011

- .

<미국 비도시지역(nonmetro) 55~74세의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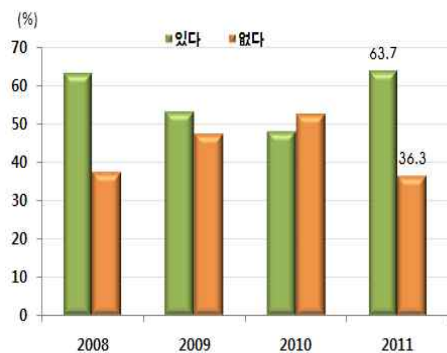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명)

구 분	1990	2000	2010	2020 (추정)
북동부(Northeast)	0.886	0.925	1.276	1.686
중서부(Midwest)	2.633	2.685	3.235	3.944
남부(South)	3.480	3.868	4.972	6.272
서부(West)	0.957	1.152	1.708	2.251
합계	7.957	8.631	11.191	14.152

자료 : John Cromartie and Peter Nelsom(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USDA

<한국 향후 농촌 거주 의향>

(단위 : %)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12). “ : ”

”, 『RDA Interrobang』, 53 , .

□ 2011

20.6%

17.2%,

16.8%,

16.7%

2.1%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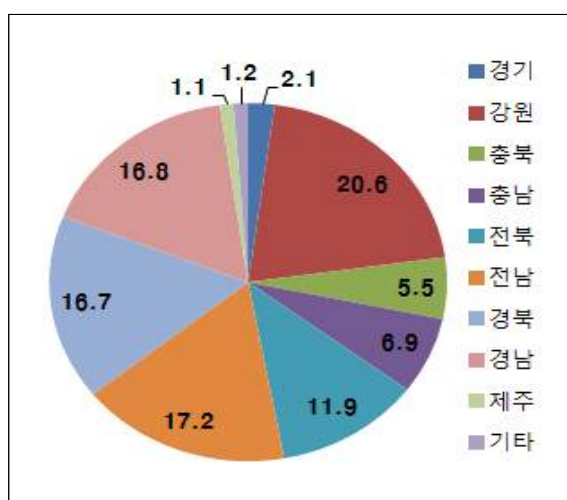
49.6%,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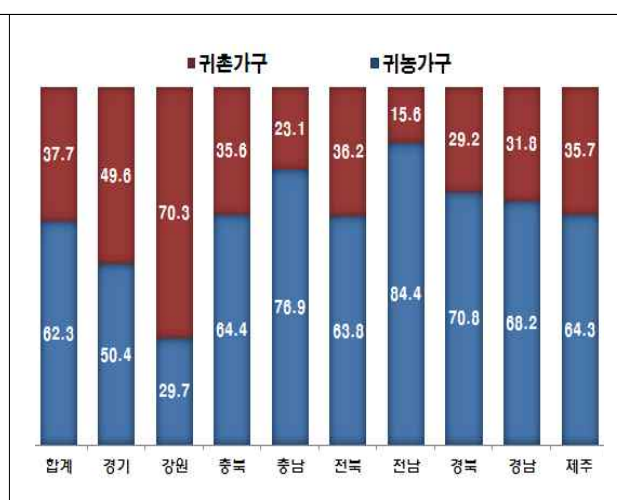
76.9%,

70.8%

<귀농 · 귀촌의 지역별 분포(2011)>



<지역별 귀촌과 귀농의 비중(2011)>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2..23).

Ⅱ .

□ IMF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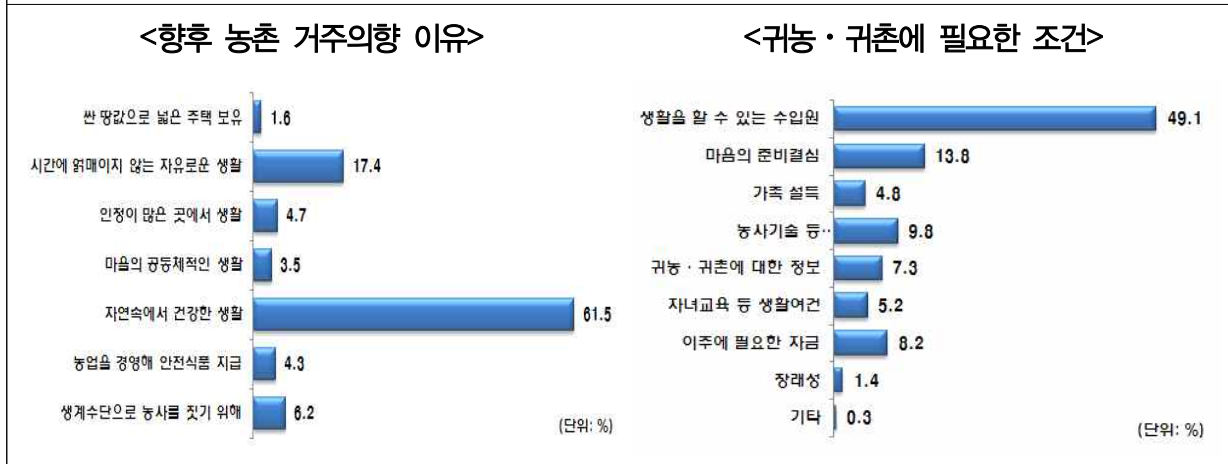
-

-

<귀농 · 귀촌의 유형 구분>

유 형		시기 (직업변화형태)	목적	생활영역 및 형태
스마트형		청장년 (창업/전업)	- 기업적 가치 추구	-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종사 - 융·복합 영농
전원 생활형	귀촌	청장년 (이직/전직)	-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	-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 텃밭 가꾸기, 창작·취미생활 등 추구
	귀농			-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다양한 소득창출 활동
노후생활형		노년 (은퇴)	- 노후생활 터전	- 노인이 경작 가능한 실버농업에 종사 - 중산층과 빈곤층 혼재

「농업 · 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61.5%),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17.4%)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귀농 · 귀촌 이후 생활에 필요한 최고한의 수입원(49.1%)을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김동원 외(2011). 『농업 · 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NS, TV

<스마트농업의 진화>



자료 : 김상철 외(2011). “스마트 시대, 스마트 농업”, 『RDA Interrobang』 제13호, 농촌진흥청.

KT,

- KT

<KT 시설재배용 올레스마트팜>



자료 : “KT, 시설재배 관제용 앱 ‘올레 스마트 팜’ 개발”, KT 보도자료(2011.3.10.).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술정보>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2 3) 1 IT

- 3 J (氣霧栽培)

- A e-

- B PC

<기무재배 농법을 활용한 시설채소 재배>

경기도 여주에 귀농한 J씨는 대기업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기무재배 농업기술을 은퇴 이후 귀농에 활용하여 품질 및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무농약, 무오염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J씨가 도입한 기무재배 기술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와 달리 양액을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법으로 물 사용량이 기존 농법의 10%에 불과하다. J씨는 또한 회사근무시 습득한 철골기술을 활용해 하우스를 돔 형식으로 설치하였다. 돔 형식의 하우스는 공기순환이 잘 되며, 실내 재배공간 디자인을 다채롭게 하여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료 : 현장 인터뷰 및 촬영(2012. 3. 27).

3) 1997 . 1 , 2008 . 2 .

<전원생활형 귀농 사례 - 경남 산청 H씨>

웨딩 포토그래퍼로 활약하던 H씨는 은퇴를 앞두고 남은 인생을 위해 아내와 상의해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약초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던 산청군으로 내려와 1년 간 당귀 농사를 지었으나 실패를 겪었다.

실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귀농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농이 아닌 관광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매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를 숲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단체인 '초록교실 씨밀레'와 인연이 되어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방과 후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H씨는 또한 '구름 속 산책' 농장에서 완전 유기농으로 방사 유정란을 생산하여 공급이 가능한 도시민 150명의 소수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자료 : 귀농 · 귀촌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

<귀농인의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례>

사례 1 :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활동 추진 귀농 · 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2009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업은 “진안홍삼 현미경 발효제품 생산”, “지역자생약초를 활용한 효소음료 상품 개발”, “농특산물 전시장 및 직거래 유통”, “자생약초를 활용한 화장수 및 추출물 개발”, “천마차, 천마효소 만들기”, “약초생산기반을 활용한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귀농 · 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안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례 2 : 도시민의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상품화기법 개발 귀농인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은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 방식으로 제철꾸러미사업이 등장하였다. 꾸러미사업은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다품목 · 소포장 형태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생산자조합이 결성되어 다수의 생산자가 텃밭형태로 토종의 씨앗을 사용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생산자조합과 소비자간 직거래모델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제철꾸러미사업 소포장> 

자료 : 1. 황정미 외(2011). “귀농 · 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2. 최윤지 외(2012). “귀농 손자병법 :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RDA Interrobang』, 제53호, 농촌진흥청.

- . ,

- .

<귀농 · 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례>

활 동	사례 개요 및 효과	인적 사항	지원 유무	유사 사례
농산물 생산(가공) 조직운영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처리 가공 영농조합법인 설립 · 운영 ⇒ 지역내 고용, 농산물 판매 효과 창출	52세 양구 6년차	유	완주 괴산 홍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지역사회문화학교 “지리산 학교” 개교 - 귀농 · 귀촌 예술인 12명이 사진, 퀼트, 시, 천연염색 등 12 과목 교양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농 · 귀촌인 뿐만 아니라 토착주민의 관심 및 참여 증가	41세 하동 4년차	무	봉화 산청 완주

자료 : 황정임 외(2011). “귀농 · 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

,

•

-

•

-

,

,

700

<귀촌사례 - C씨의 꿀초>

번역일을 하는 C씨 부부는 2002년 귀촌했다. 부부는 하루 2차례 산책을 거르지 않고 있으며 번역 일과 밀랍초 제작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그저 물 흐르듯 때가 되면 초를 만들고 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번역 작업을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 돌보는 일을 한다. C씨가 귀촌 이후 현지의 꿀을 활용해 제작하는 밀랍초는 한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연재료만 사용할 뿐 인공 색상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다.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 수입이 적어도 상관없다.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 여부 확인은 나중 일이고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부부는 말한다.



자료 : 빈도림 슬로카페 & 게스트하우스(<http://cafe.naver.com/bindorim>).



,

2011 60

•

2,550

769

3.3

- 2011 60 . 24.3%

-

<노후생활형 농업>

노후생활형 농업은 고령자를 쾌적한 농촌으로 이동시켜 적당한 일거리와 소득생활로 실버세대가 스스로 경제적 여건을 굳건히 하면서 남은 삶을 보람 있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 노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실버세대 스스로에게 수익을 주어 노년의 안정을 추구하는 농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이 있는 고소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분야
- 작업량, 작업 강도 등이 노년층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며, 적당한 운동량이 요구되는 농사일
- 노년층 스스로가 좋아하는 농작물 선택과 동시에 농사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 제공
- 적당한 작물은 소규모의 친환경농업 및 버섯재배, 양봉, 약초재배, 곤충사육 등

자료 : OK시골(2004). “실버농업의 필요성”(http://www.oksigol.com).

<일본 실버세대의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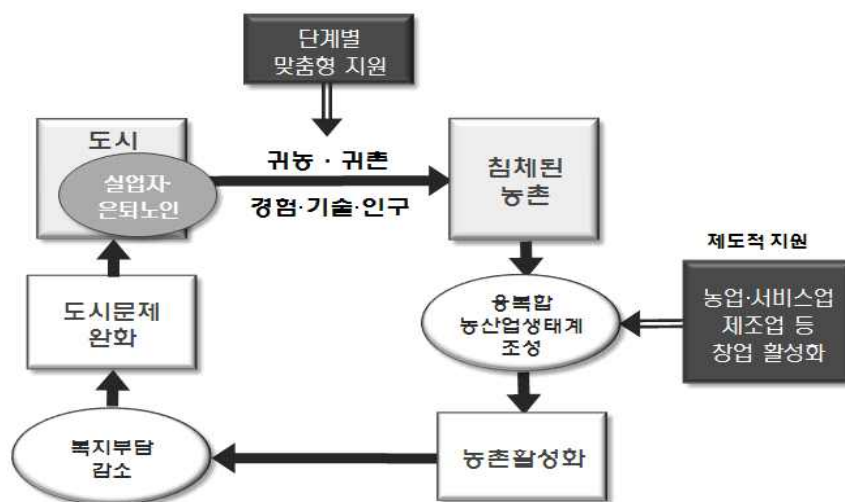
일본 오가와무라(小川村)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와가와무라노호(小川の庄)를 설립해 노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가와무라노호의 고용구조는 40대 이하 21%, 50대 30%, 60대 33%, 70대 16%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한다. 오야키의 제조특성은 고강도의 노동력보다는 숙련된 경험을 살린 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착안하여 실버세대의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령자가 제조·판매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전통수작업 제조방식>	<오야키 정식>	<오야키 체험홍보물>
		

자료 : (사)지역농업네트워크(2010). 『해외출장보고자료』.

III.

<귀농 · 귀촌을 통한 도농연계 생산적 · 능동적 복지시스템>



(Start-up)



4)

<농촌진흥청의 귀농 · 귀촌 정보 지원시스템>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4)



-

,

,

,

•



-

-

,

,

<일본 시즈오카현의 노후생활형농업 교육 및 체험>



사진 (좌, 중) : 静岡県 홈페이지(www.pref.shizuoka.jp), (우) : 群馬縣 홈페이지(www.pref.gunma.jp).

IV.



.

.

.

-

-

.

,

,

3

,

<귀농 · 귀촌 3단계 지원 방안>

구 분	귀농	귀촌
입문단계	•농업관련 기본 교육 •품목별 기본 교육 •스마트농업 기본 교육	•농촌 지역별 현황 및 특성 소개 •귀촌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현장 중심 소개
적응단계	•인턴농제도 개선 - 1~2개월 단위 농장 전환 허용 •귀농 인큐베이팅 추진 -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활용(최대 3년) - 멘토제도 도입 •지역별 특성화 된 전문 교육 - 지역 농업기술센터 중심 추진	•주택문제 지원 - 임대 가능 주택 DB 구축 지원 •지역커뮤니티 형성 지원 - 교육, 문화 등 지역사업 발굴 및 지원 - 노후생활형농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비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커뮤니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착단계	•스타트업(Start-up)전문경영교육 추진 - 마케팅, 세무, 회계 등	



.

,

,

.

-

·



5 2

1+2

·

3

1

2

1+2

-

1~2

1

- 2



,

DB

·

-

·

DB

,

-

·

·

·

,

【 귀농 · 귀촌 가구 수 현황 】

(단위 : 가구)

시 · 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지역별	부산	1	-	-	-	-	-	1	-	-	-	-	-
	대구	0	-	-	-	-	-	-	-	-	-	-	-
	인천	216	-	1	-	16	28	2	-	-	26	20	123
	광주	13	13	-	-	5	6	-	1	-	-	-	1
	대전	2	1	-	-	-	-	-	1	-	-	-	-
	울산	7	-	-	-	-	-	7	-	-	-	-	-
	경기	88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3,769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충북	1,967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충남	2,476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전북	4,44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전남	4,235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경북	6,73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경남	4,900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제주	487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연령별	290이하	1,43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30~39	5,547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40~49	8,82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50~59	8,841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5,435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물식품부 보도자료(2012.2.23).